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 발굴 역량 결집

전북도, 전문가 간담회 갖고 법안 반영 위한 특례 타당성 논리 구체화 등 전략 보강·논의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 회의로 현재까지 발굴된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타당성 논리를 구체화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 위원장인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주재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5급 이상 공무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 발굴 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발굴 특례 타당성 및 보완사항 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관련 추가 특례 발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특례는 29건으로 특례 유형별로는 권한·사무이양 10건, 도조례위임 4건, 규제특례 1건, 법적특례 14건 등이다.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에서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발굴된 특례법안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고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전북의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선8기 도정의 첫째 목표인 기업유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례 발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특례 발굴에 총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전라북도 특례 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등 분야별 총 7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 'S등급'

구축·운영 사업평가서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쾌거'

전북도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 획득했다.

지난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2022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연차 평가에서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는 전문랩 30개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획득해 정부지원금 5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문랩 최고등급 S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중요지표인 기업 투자·판로 등 성장지원 연계 실적, 양산 지원 실적 등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뚝딱 365는 탄소 분야 전문창업과 진흥원 입주공간 연계, 탄소·3D설계·전기전자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실적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 전문랩은 2020년에 선정된 탄소 전문 메이커스페이스로 전북지역의 전문 메이커 육성과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됐다.

2020년 메이커 육성을 위한 전용 공간과 전문장비, 전담인력을 채용해 기반을 구축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메이커 육성을 위한 탄소복합재 및 시제품 제작 교육, 문화확산 행사, 시제품·시금형 제작 지원, 창업 연계 서비스를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전북도는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3탄으로 도내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240만원과 전북도 지원액 240만원, 여기에 이자까지 합산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신청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근로 청년(만 18~39세)이다. 접수기간은 27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모집 대상자는 300명이다.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점차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2시간), 오프라인 금융교육(2시간), 금융컨설팅(1시간)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적금 납입을 통한 저축습관 형성 및 자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으로 생애 재무표를 설계해 보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인력양성 지원센터 개소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완주군에 위치한 이차전지소재융합센터에서 (재)전북 테크노파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력양성을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관리한다.

지원센터는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소재융합팀이 담당하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연·관을 연계한 인력 수요·공급, △현장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 수급 현황을 파악해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과 협업해 융복합 과정 운영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고,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 및 재직자 수준별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가 산·학·연·관을 연계해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혁신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전북전세버스조합, 협약 체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지난 24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형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수송차량 운행에 참여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대회기간 안정적인 차량 공급과 체계적인 운행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는 대회참가자의 수송지원을 위해 공항에서 메인등록센터(전주월드컵경기장), 메인등록센터에서 시군, 시군 숙소에서 경기장, 시·군간 운행 노선과 개·폐회식 참가 운행 등 총 5개 구간에 대해 668대의 차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내 14개 시군의 전세버스 등록 업체 102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대형버스 1,211대, 중형버스 776대 등 총 1,98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버스조합은 수송상황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차량배차 및 운행상황을 관리하고, 차량운행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조직위의 협조요청에 따라 각 학교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일정 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박형택 이사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송을 위해 조합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전세버스운송조합이 협력해 줘서 감사하다"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지역업체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올해 첫 '전북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개최

전라북도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익산시 우리들의 정원(사회적 농장)에서 올해 첫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3년 연속 전국 최다 사회적 농업 선정 성과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번 네트워크에는 22개 사회적 농장 (△개별농장 18,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1, △지역서비스 공동체 3) 농장주와 시군 담당 공무원, 예비 사회적 농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의 추진방향, 거점농장의 역할,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애로 사항 청취 등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거점농장) 이효진 상임이사는 "사회적 농업 선도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지역을 사회적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먼저 실천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또한, '농업과 농촌마을에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충남 홍성군 장곡면)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전북도가 사회적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